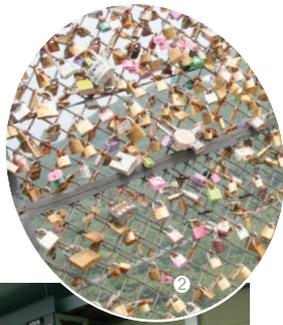


남산송신소 안전관리 현장을 다녀와서...



- ① 해발360m의 N서울타워 (맑은날에는 인천앞바다와 북한 개성의 송악산까지 보인다고 한다)
- ② 연인들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꼭 들려야 할 장소 (영원함을 상징하는 자물쇠들)
- ③ SBS 남산송신소 내부의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들
- ④ 변압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허필우 회원

취재 _ 제도연구실



평일 117분, 주말 166분, 하루 평균 131분,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지상파TV 시청시간이다. 또한 가구당 일반TV 보유율은 99.6%로 각 가정마다 1대의 TV를 보유하고 있다.

위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TV는 우리 삶의 일부이며, 유익한 정보와 소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하루에 피로를 잊게 해주는 유쾌한 웃음 등을 전달해 주는 매체이다 이러한 TV를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허필우 회원을 만나보았다.

허필우 회원은 SBS(서울방송) 남산송신소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신소에서는 방송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고 고주파로 만들어 시청자가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송신소의 특성상 전기업무 뿐만 아니라 전파통신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데 송신소의 근무하는 직원 20명 모두가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SBS의 송신소는 남산, 관악, 용문, 고양, 광교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산송신소를 중심으로 하여 관리되고 있다. 관악송신소에만 주간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고 그 외 송신소는 남산송신소에서 무인으로 주·야간 원격 관리되고 있다. 또한 20명이 4팀(전기안전관리자 1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각 팀이 순서에 맞춰 4개월간 각 지역에 있는 송신소를 순회하며 점검하는 현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일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에 정파(방송 송출관련 장비를 정지 시킴)를 실시하는데, 정파시간인 새벽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방송장비 및 전기관련 장비를 정밀점검 하고 있다.

허필우 회원이 SBS에 입사한 것은 97년도이다. 졸업과 함께 입사하여 처음에는 전기보다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기술을 배우고 싶어했다. 하지만 전공이 전기공학과이다 보니 강전을 다루어야 하는 남산송신소로 발령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근무지는 물론 주어진 일에 만족한다고 한다.

남산송신소는 1991년도에 개소하였는데 순간전압강하로 인한 UPS 작동 외에는 정전관련 사고는 전무하다고 한다. 전기실은 그 어느 곳의 전기실보다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남산송신소가 1991년도에 생겼던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설비이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현재 설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고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다. 특히 UPS 배터리에 전압계이지를 장착하여 특별한 장비 없이 육안으로도 바로 전압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과 교체한 장비 및 교체 날짜 등을 점검일지 뿐만 아니라 교체 장비 근처에 적어 놓음으로써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장비의 교체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허필우 회원과 취재동행을 하면서 받았던 느낌은 적극적이고 밝았다는 것이다. 20명중 17명이 선배님이라고 말하는 허필우 회원은 짧은 취재시간이었지만 뒷사람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다둥이 아빠(2남1녀)이기도 한 허필우 회원은 퇴근 후에는 세 아이의 아버지 역할로 인해 바쁘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올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한다. 회사, 가정, 학교에서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재를 마치면서 전국의 안전관리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부탁한다는 요청에 허필우 회원은 모든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과 자기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 ⑤ 비상용 발전설비
- ⑥ 전압계이지가 설치되어 있는 UPS 설비
- ⑦ 효율적인 관리를 엿볼 수 있는 장면들
- ※ 전기업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사진과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놓는다면 제3자가 보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의 격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⑧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점검일지와 함께
- ⑨ 주방 아주머니와 다정한 한 컷